2009. 11. 16 제227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09. 11. 16 제227호

목 차

산업·경제

1. 숙박업소 부가가치세를 인하해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독일)

건강·복지

2.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 건립 (런던)
3. 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서민층에게 저렴하게 제공 (브라질 상파울루州)
4. 겨울철 노숙자 숙소 추가 설치 (함부르크)
5. 직장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베를린)
6. '재택의료 거점병원 사업' 시범 실시 (도쿄)

행정·재정

7. 뉴욕의 311 정보센터 대(對) 서울의 120 다산콜센터 (뉴욕)

방재·안전

8. 미성년 성매매·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해 '사이버 순찰' 실시 (일본 나가사키縣)
9. 응급처치 방법을 소개한 수첩을 각 가정에 무료 배포 (북경)

목 차

도시환경

10.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중점을 둔 대기오염 개선안 마련 (런던)

11. 비행기 탑승객이 휴대전화로 기부하는 '탄소 상쇄' 프로그램 도입 (일본)

도시교통

12. 주말과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요금 할인 검토 (뉴욕)

13.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주말 저녁시간대 택시요금 인하 (상파울루市)

14. 자전거 이용 안전 향상계획안 마련 (런던)

15. 향후 20년간 추진할 교통전략안 마련 (런던)

16. 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에 관한 특화된 정보 제공 (런던)

17. 차세대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버스 도입 (런던)

도시계획·주택

18. 건물 앞 인도(人道) 보수·관리 강화 (상파울루市)

산 업 · 경 제

1. 숙박업소 부가가치세를 인하해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독일)

○ 독일연방 관광청은 연방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혁 계획안 중 관광분야 세제개혁안에 적극 지지를 표명함. 이번 계획안 중 관광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호텔과 소규모 숙박업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2010년 초에 현재의 19%에서 7%로 낮추는 것임.

- 이번 부가가치세 인하계획은 관광분야에서 다른 유럽 국가와 균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특히 중소 규모 관광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현재 많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는 관광산업을 21세기의 주요 산업이라고 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임.

- 연방 관광청은 부가가치세가 인하되면 박람회나 국제회의 유치가 확대되고 관광분야 투자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완화하면 관광 및 요식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완화하면 중소규모 호텔이나 요식업소는 청소년에게 적은 임금으로 일과 직업 훈련을 시킬 수 있고, 관광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이 분야의 경력을 일찍부터 쌓을 수 있음.

(www.bmwi.de/BMWi/Navigation/Presse/pressemitteilungen,did=318498.html)

한줄뉴스

- 뉴욕
  - 브롱스區 아모리 지역 일대를 상가, 공원, 문화·여가시설 등으로 재개발하려는 사업계획안 승인

- 브라질 쿠리치바市
  -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공원 가로등의 불을 밝히는 시범사업 실시

2.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 건립 (런던)

○ 런던市는 더 활동적이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영장이 없는 지역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등 커뮤니티 스포츠시설 조성에 750만 파운드(약 150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

- 수영장 조성 사업은 어린이 자선클럽, 아마추어 수영협회, 런던 수영 등이 공동 주관함. 수영장 2개를 먼저 조성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주일 내내 운영할 예정임.

- 市는 어린이와 성인이 스포츠 활동에 더 자주 참여하면 비만과 같은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058)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市는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수영 유관기관과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수영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 수영장 조성 사업은 시민의 수영 참여 욕구를 충족할 뿐 아니라 건강증진과 비만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민의 수영 참여 욕구는 상당히 높은 반면 시설은 부족하므로 서울에서도 수영장 시설 확충이 필요함.

· 2008년 국민 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 17.1%가 장래에 참여하고 싶은 운동종목으로 수영을 꼽고 있음. 다른 체육 관련 연구에서도 수영이 참여 희망 종목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함,

· 따라서 수영 유관기관과 협력하거나 기금 모금사업을 펼쳐 수영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노은이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eyn@sdi.re.kr)

3. 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서민층에게 저렴하게 제공 (브라질 상파울루州)

○ 브라질 상파울루州는 2009년 11월 9일부터 컴퓨터를 이용하는 서민층에게 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함. 이용요금은 기존 월 50헤알(약 3만 3000원)보다 싼 월 29.8헤알(약 2만 원)임.

- '서민 고속인터넷 프로그램'은 州정부가 인터넷 접속서비스 회사에 25%의 유통세(ICMS)를 감면해 주면 업체가 고속인터넷 이용료를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란 증명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산층도 이용 가능함.

(oglobo.globo.com/economia/mat/2009/10/15/com-telefonica-governo-de-sp-lanca-banda-larga-popular-768067247.asp)

4. 겨울철 노숙자 숙소 추가 설치 (함부르크)

○ 독일 함부르크市 사회복지청의 겨울철 노숙자 프로그램에 따라 200개의 노숙자 숙소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4월 15일까지 추가로 설치·운영됨. 市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40만 유로(약 7억 원)를 지원함.

- 각 지역의 교회, 사회교육 전문대학, 기독교재단 건물 부지에 70여 개의 노숙자 주거용 컨테이너도 설치함.
  · 대부분 1인실로 만들어지며 사회교육 전문대학 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는 여성이나 부부 노숙자에게 제공함. 수요가 많을 경우 컨테이너를 더 설치할 계획임.

- 노숙자 숙소에는 여성이나 부부 노숙자를 위한 방이 별도로 마련되며, 가장 큰 숙소에는 일자리와 주거 및 건강 상담을 해주는 인력을 배치함. 큰 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숙자 보호소에서 노숙자를 숙소로 데려오는 셔틀버스도 운행함.

- 2008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숙자는 노숙자 숙소보다 좀 더 자유로운 생활

이 보장되는 컨테이너 숙소를 선호하고 있으며, 숙소에서 진행하는 개인 상담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 상담을 받은 노숙자 중 80명 이상이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 나가고 다른 노숙자들도 전문 의료기관이나 재활센터로 들어가 노숙생활을 벗어남.



노숙자 숙소와 컨테이너

(www.hamburg.de/pressearchiv-fhh/1880526/2009-10-23-bsg-winternotprogramm.html)

5. 직장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베를린)

○ 베를린市는 'Parents-Child-Workplace' 사업을 스판다우區에서 시범 실시함. 이 사업은 어린 아이가 있는 직장인이 갑자기 아이를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장에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임.

- 市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 부모가 결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하기보다는 직장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힘.

- 市 지원으로 스판다우區 재정과에 마련된 Parents-Child-Workplace는 아이가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가정집처럼 실내를 장식하고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고무 카펫을 바닥에 깖.

· 아이를 데리고 온 직장인이 이곳에 와서 업무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사무기

기가 설치되어 있고, 연령별로 다양한 어린이 놀이터와 침대, 책상과 컴퓨터, 다양한 완구와 학용품이 비치되어 있음.

· 장애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장애인 화장실도 따로 설치됨. 이곳에 데리고 오는 아이의 연령은 제한이 없음.

- 市는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각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0/27/143791/index.html)

6. '재택의료 거점병원 사업' 시범 실시 (도쿄)

○ 도쿄都는 안심하고 재택요양을 할 수 있는 지역의료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재택의료 거점병원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함. 다이토區, 아라카와區, 히노市, 미타카市 등 4곳에서 지정 거점병원과 연계해 시범사업을 실시함.

- 고령자가 집에서 요양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고령자의 가변적인 건강상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 방문 간호사,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환자나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응급상황 발생 시 입원할 수 있는 거점병원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함.

· 재택요양을 하는 고령자가 응급상황으로 입원하게 되면 거점병원의 의료진과 재택의료 담당의사, 간호사 등이 함께 케이스 콘퍼런스(의료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의하는 회의)를 실시함.

- 都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합동 연수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재택요양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0/20jag500.htm)

7. 뉴욕의 311 정보센터 대(對) 서울의 120 다산콜센터 (뉴욕)

○ 뉴욕市는 서울市의 다산콜센터와 같이 도시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311 정보센터'를 운영함.

- 311 정보센터에서는 ① 교통·통행, ② 환경·위생, ③ 부동산, ④ 교육· 고용, ⑤ 경영·회계, ⑥ 사회복지 서비스, ⑦ 건강·보건, ⑧ 공공 안전· 법률, ⑨ 정부·도시행정, ⑩ 문화·여가 등의 정보를 제공함.

- 두 도시에서 각각 운영하는 도시정보 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뉴욕의 311 정보센터는 좀 더 체계화되고 유형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 검색도 가능함. 특히 카테고리별 정보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함.
  · 서울市의 120 다산콜센터 서비스는 시민이 전화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원하는 정보를 세세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임. 또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문의하고 답하는 등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음.

(www.nyc.gov/apps/311) (http://120.seoul.go.kr)

한 줄 뉴 스

● 베를린
- 새로운 도시건강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9개 區와 함께 2009년 11월 5일 '자치구 건강 콘퍼런스: 네트워크 구축과 참여를 위한 길'개최

● 도쿄
- 신종플루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인근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에 좀 더 효율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

방 재 · 안 전

8. 미성년 성매매·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해 '사이버 순찰' 실시 (일본 나가사키縣)

○ 일본 나가사키縣은 '자녀를 위한 미디어환경협의회'를 구성하고 인터넷상에서 미성년 성매매를 유도·알선하거나 사이버 테러를 가하는 사례를 단속하는 '사이버 순찰' 활동에 나섬.

- 협의회의 주 업무는 청소년이 자주 접속하는 친구 찾기나 교류 사이트에서 범죄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댓글로 '나가사키 미디어 협의회'라고 남겨 작성자를 주시하고 있음을 경고함. 또한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이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와 경찰서에 이 사실을 통보함.
  · 2009년 9월 한 달간 1615건의 댓글을 남기고 395건의 특정인물 비방·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적발함.
  ·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열람·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나가사키縣 교육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10%, 중학생의 약 25%, 고등학생의 약 90%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며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점점 늘고 있음.
  · 친구 찾기나 만남 알선, 게임 사이트에서 성범죄 피해를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들 사이트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 자살한 사례도 있음. 이에 반해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프로그램 보급률은 27%에 머물고 있음.

(요미우리신문, 2009. 10. 16)

9. 응급처치 방법을 소개한 수첩을 각 가정에 무료 배포 (북경)

○ 북경市는 2009년 10월 22일 가정 내 응급처치 방법을 소개한 수첩을 무료 배포하는 행사를 열고 연말까지 약 600만 세대에 우송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 수첩은 市 적십자회가 전문가의 의견과 응급처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임. 가정 내 응급처치, 긴급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 간단명료하게 소개되어 있음.

- 市 적십자회는 2009년 11월 1일 999번 핫라인을 개설해 의료전문가가 응급처치에 대한 시민 문의사항에 답하도록 함.

(http://zhengwu.beijing.gov.cn/gzdt/bmdt/t1090791.htm)

(北京日报, 2009. 10. 23)

한줄뉴스

- 도쿄
  - 롯폰기 거리를 무대로 미술작품, 음악, 영화, 연극, 무용 등을 즐길 수 있는 '아트 나이트' 행사를 2010년 3월 27~28일 개최
  - 고령자의 경험이나 능력을 살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 1월 '고령사회 대책 심포지엄' 개최

도 시 환 경

10.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중점을 둔 대기오염 개선안 마련 (런던)

○ 런던市는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한 전략안을 마련함. 'Clearing the Air'라고 불리는 이 전략안은 대기를 더럽히는 주요 오염원 관리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은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PM10)로 이는 주 오염원인 도로교통을 비롯하여 가정과 사업장에서의 연료 사용으로 발생함. 이밖에 런던 외부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도 상당량에 이르고 있음.
  · 그동안 市가 적극 시행해온 친환경 교통수단(자전거 등) 활성화방안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 등은 유럽연합 법정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략안에 따르면 市는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 2012년까지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를 20~25퍼센트 줄이고 2015년까지 이산화질소 농도를 35~40퍼센트 줄인다는 목표를 세움.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운행수명 제도를 도입해 2012년부터는 15년 이상, 2015년부터는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함.

- 이밖에 전략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저배출 지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가는 방안과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고 이 지역에 대기 정화식물을 심는 등 맞춤형 집중관리대책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함.

- 2009년 11월 말까지 시의회, 유관기관(교통공사, 경찰청 등)과 협의해 전략안을 수정 보완한 뒤 2010년 초에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879)

(www.london.gov.uk/mayor/environment/air_quality/index.jsp)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市에서 2010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제2차 대기환경 개선전략(안)은 2003년 제1차 전략 수립 이후의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대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
  · 특히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원의 특화관리를 위한 맞춤형 전략 마련, 외부 오염원 유입현상 파악과 대응, 중앙정부와의 협력 증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과 같은 전략과 사업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자동차 환경 특화관리를 집중 추진한 결과 2008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995년 대기 질 측정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55㎍/㎥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둠.
  · 특히 현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더하여 그린 카 등 저탄소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법규 및 제도 정비 등을 중앙정부와 협력해 추진한 점은 대기 개선 효과를 배가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환경경쟁력과 자생력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됨.
  · 다만 향후 서울 유입·유출 자동차의 대기오염 유발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도입할 예정인 서울 및 수도권 환경지역 지정·운영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협조 및 공감대 형성, 서울형 친환경자동차 인증제도 도입, 시민의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참여 동기 부여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11. 비행기 탑승객이 휴대전화로 기부하는 '탄소 상쇄' 프로그램 도입 (일본)

○ 전일본항공(ANA)은 2009년 10월부터 승객이 이용한 비행거리에 따라 숲 조성사업에 기부하는 '카본 오프셋'(Carbon Offset)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함. 일

종의 탄소 상쇄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연간 4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항공기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승객이 실제 부담하는 카본 오프셋 사업은 2005년 영국항공(BA)이 처음 도입하여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일본항공(JAL)이 2009년 2월 도입하였으나 승객이 직접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6개월간 이용건수가 128건, 상쇄된 이산화탄소량은 50톤에 불과함.

- 전일본항공이 이번에 도입한 프로그램은 공항 내의 포스터나 팸플릿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등록할 수 있어 탑승 전에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도쿄~오사카 간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517엔(약 6700원)이 상쇄비용으로 계산되며, 이 돈은 홋카이도의 삼림 정비에 사용됨.

- 민관합동기관인 카본 오프셋 추진 네트워크는 항공 분야의 카본 오프셋 프로그램이 휴대전화를 활용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른 분야로 쉽게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요미우리신문, 2009. 10. 14)

>>> 전문가 검토의견

-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항공기를 이용한 교통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그렇지만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교통부문의 일반적인 온실가스 저감대책인 수요 관리, 연비 개선 등의 정책을 적용할 수 없음.
  · 현재 비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상쇄(Offset)할 수 있을 만큼 나무를 심는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지만 항공사와 휴대전화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신선한 시도임.

· 해외 여행객의 상당수가 서울시민이고 국내 최대의 국제공항이 수도권에 있어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서울시도 항공사·IT업계와 협조해 카본 오프셋 프로그램에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진상현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부연구위원(upperhm@sdi.re.kr)

한줄뉴스

- 런던
  - 녹지가 부족한 자치구에 나무 4000그루를 심기 위한 기금 조성
  - 도심의 미개발지인 나인 엘름 지역을 녹지와 주택단지, 고층건물 등으로 탈바꿈하려는 도시재생계획안 추진

도 시 교 통

12. 주말과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요금 할인 검토 (뉴욕)

○ 뉴욕市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심야시간대와 주말 같은 비첨두시간대(Off-peak Time)에 요금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함.

-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은 여러 번 시행되었지만, 혼잡한 시간대가 아니라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승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새로운 접근법임.
  · 일부에서는 요금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요금 인하로 더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어 수익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음.

(http://sf.streetsblog.org/2009/10/23/could-off-peak-bargain-fares-bring-more-revenue-to-muni-and-bart)

>>> 전문가 검토의견

- 뉴욕市 교통국의 '주말과 심야시간대의 대중교통요금 할인방안'은 이미 대중교통요금이 현실화되어 있는 선진 외국도시에서 시행 중인 차등요금정책의 취지와 유사함.
  · 런던의 경우 한계비용이 높게 발생되는 혼잡시간대 이외의 통행(예를 들면 새벽 통행 등)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 환승할인 통합요금제에서 1차적인 요금할인을 시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교통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요를 발생시켜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대책 마련 없이는 할인제도를 추가 시행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임.

· 서울시가 준공영 제도에 근거하여 수도권 환승할인 통합요금제에서 발생하는 할인요금의 일정부분인 약 2000억 원을 매년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운영업체의 경영 손실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데 한계가 있음.

/신성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ssi@sdi.re.kr)

13.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주말 저녁시간대 택시요금 인하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음주운전을 줄이고 택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시간대 택시요금을 2009년 11월부터 인하함.

- 市 교통국이 택시요금 인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말 저녁시간대 요금을 30% 내리면 응답자의 58%가 택시를 이용하겠다고 답했으며 20%를 내리면 응답자의 45%가 이용하겠다고 답함.
  · 저녁에 외출하는 시민의 절반 정도가 술을 마시고, 이 중 62%가 술집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조사됨.

(estadao.com.br/noticias/geral,taxi-sera-mais-barato-nas-noites-de-sextas-e-sabados,456972,0.htm)

14. 자전거 이용 안전 향상계획안 마련 (런던)

○ 런던市는 자전거 이용을 늘리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을 마련함.

- 이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① 도로 이용자에게 자전거 안전에 대한 홍보 강화, ② 안전한 자전거도로와 시설 조성, ③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화, ④ 혁신적인 안전대책 시험 실시, ⑤ 자전거 안전 전문가를 자치구에 파견, ⑥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 실시, ⑦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 지원 등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080)

15. 향후 20년간 추진할 교통전략안 마련 (런던)

○ 런던市는 향후 20년간 추진할 교통전략안을 최근 발표하고 市와 교통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교통전략안은 지하철 과부하현상 해소, 자전거 이용 확대 등 현안과제를 소개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현안과제로는 ① 런던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취업인구의 증가로 교통수요 증대, ②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대기오염물질 감축, ③ 장애인 이용 편의 증대, ④ 방재기능 개선 등이 도출되었음.

-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계획안을 ① 대중교통, ② 경제성장, ③ 삶의 질, ④ 안전과 방재, ⑤ 모두를 위한 교통, ⑥ 기후변화, ⑦ 2012년 올림픽, ⑧ 각종 교통시설과 서비스 개선 등의 주제로 나눠 제시함.

- 전략안은 또한 2001년 수립한 런던 최초의 교통전략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선불카드제도, 대중교통의 성공적인 운영, 버스운영체계 개선, 자전거 이용 확대 등 긍정적인 결과를 지속화하는 방안도 제시함.

- 시민은 市 홈페이지나 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략안의 내용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들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市는 2010년 1월까지 설명회를 여는 등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10년 봄에 교통전략안을 확정할 예정임.

(mts.tfl.gov.uk/default.aspx)

한줄뉴스

- 북경
  - 2009년 말까지 약국에 혈압계, 체중계, 허리둘레 측정을 위한 줄자 비치 의무화
  - 중국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 효율성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 차지

16. 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에 관한 특화된 정보 제공 (런던)

○ 런던 교통공사는 홈페이지에 'London Freight Matters'(화물교통의 중요성)란 특별 항목을 마련해 화물차량 통행에 관한 특화된 정보를 제공함.

- 화물차량이 운행경로를 미리 계획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과 도로교통 현황을 지도 위에 표시해 제공하고 경로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 '저배출 지역' 운영제도, 혼잡통행료 부과, 대형화물 통제, 런던 화물교통 전략,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사업과 관련 뉴스 등 화물차량 통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함.

(www.tfl.gov.uk/microsites/freight/default.aspx)

17. 차세대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버스 도입 (런던)

○ 런던市 동부에 수소연료전지 충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버스를 적극 도입할 예정임.

- 2010년 여름에 충전소가 완공되면 1차로 수소연료전지 버스 5대를 1개 노선에 투입함. 수소버스 점검 및 수리도 수행할 예정인 충전소는 향후 수소버스 도입 확대에 중요한 거점이 될 전망임.
  · 市는 버스회사, 수소연료전지 및 충전장치 생산회사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수소버스 도입과 운영 전반을 공동 추진함.

- 현재 런던시내에서 운행 중인 하이브리드 버스는 총 56대이며, 市는 수소버스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자금 지원을 신청할 계획임.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3398.aspx)

도시계획·주택

18. 건물 앞 인도(人道) 보수·관리 강화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건물 앞 인도(人道) 보수·관리를 건물주가 책임지도록 한 현행 제도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 보완에 착수함.

- 현재 약 3만km의 인도 중 1.4%만 양호한 실정임. 市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2009년 1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 市는 업체를 선정해 파손된 인도를 보수하고 보수비용을 건물가옥세나 다른 세금에 포함해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최근 제시함.
  · 市가 대대적으로 인도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줄어들고 건물주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세금을 거부감 없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함.

- 개선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토목기사와 건축기사로 구성된 2인조 감독반이 관할 지역의 인도를 점검하고 불량한 곳은 건물주에게 보수하도록 통보하는 등 점검활동을 강화함.

(estadao.com.br/noticias/geral,prefeitura-de-sao-paulo-estuda-criar-taxa-da-calcada,457692,0.htm)

한줄뉴스

- 상하이
  - 전화요금을 고의로 체납할 경우 신량불량자로 등록 추진
  - 푸둥공항에서 여객 수송용 전동카트를 2009년 10월부터 시범운행
  - 국제금융센터, 국제해운센터 설치에 이어 국제무역센터 건립 추진